

일본 중세 덴구(天狗)에 관한 연구*

박은희**

87bara@hanmail.net

Contents

- I. 서론
- II. 중세시대 독특한 사후세계 덴구도(天狗道)
- III. 덴구도의 덴구 유형 - 선한 덴구와 악학 덴구
- IV. 덴구와 인간의 조우 - 빙의
- V. 결론

I. 서론

일본에 있어 중세라는 시기는 정치적 혼란과 크고 작은 전란으로 점철된 시기이다. 불안정한 정국과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 중세 일본인들은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를 역사 속으로 끌어들었다. 수많은 신과 부처들은 물론 원령(怨靈), 덴구(天狗)와 같은 악령들 역시 문학 작품과 중세 사료에 빈번하게 출몰하였다. 이들 영적 존재는 인간을 지켜주고 복을 주는가 하면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들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여겨졌다. 특히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덴구는 불안정한 시국, 잦은 전쟁,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들의 배후로 지목되었으며 이들의 활약상을 다룬 이야기는 중세 사회를 배경으로 대량으로 양산되었다. 자유롭게 인간 세계를 넘나들며 인간사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미에서 중세 덴구는 인간 세계 너머에 봉인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존재였다

* 이 논문은 2012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412)

** 성공회대학교 외래강사, 일본중세문학 전공

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세 문헌에 보이는 덴구 일화를 중심으로 덴구에 대한 중세인들의 믿음의 실상을 파악하고 중세 이전, 이후 시대와의 차이점을 찾아 중세 덴구만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중세 덴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전 시대, 이후 시대 덴구의 모습과 차이를 보인다. 중세 덴구 관련 모든 자료를 한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지면상의 제약이 있어 쉽지 않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덴구도(天狗道)’에 초점을 맞추어 중세 덴구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덴구도는 불교의 윤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본만의 독특한 윤회사상이다. 필자가 찾아본 바로는 덴구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국내외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덴구에 대한 연구는 불교, 슈겐도(修驗道), 산악(山岳) 사상 등 다양한 각도에서 쓰인 방대한 양의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¹⁾ 이들 선행 연구를 통해 덴구의 사상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얻을 수 있지만 중세인의 삶 속에 살아 숨 쉬었던 덴구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덴구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덴구도를 중심으로 동시대인들의 삶 속에 차지하고 있던 덴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인간과 덴구가 접촉하는 형식 중 하나인 ‘빙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빙의를 통해 이전 시대 덴구와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히고 이를 통해 중세 덴구담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중세시대 독특한 사후세계 덴구도(天狗道)

불교의 여러 교리들 중 가장 중심된 교리는 윤회와 해탈이다. 불교에서는 선악의 업에 따라 인간이 육도, 즉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의 삼악도(三惡道)와 아

1) 덴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슈겐도적 관점에서 살펴본 『天狗と修驗者』(宮本袈裟雄, 人文書院, 1990년),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天狗と山姥』(小松和彦編集, 河出書房新社, 2000년), 설화적 관점에서 덴구를 조명한 『説話の森』(小峯和明, 岩波書店, 2001년)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중세 모노가타리(物語)나 설화 등에 등장하는 덴구를 분석한 다양한 논문들이 있다.

수라, 인간, 천계의 삼계(三界)를 윤회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모든 깨달음을 얻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 최고의 경지를 해탈이라 하여 이를 위해 정진하도록 독려했다. 병풍에 그려 넣은 지옥도를 보면서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전전궁궁했던 헤이안(平安) 시대 귀족들을 보면 그들이 사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세 일본에는 불교의 이와 같은 육도 이외에 또 하나의 사후 세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바로 덴구들이 산다고 하는 덴구도이다. 중세 문헌에는 죽어서 덴구도에 떨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종종 보이며 덴구도에 떨어진 덴구들이 인간세계를 역습하는 이야기도 많이 보인다. 덴구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사후 덴구도에 떨어진 예를 가모노 초메이(鴨長明)의 『발심집(發心集)』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8권 2화 어떤 스님이 명문(名聞)을 위해 불당을 지어 덴구가 된 이야기

어느 산사에 덕이 높다고 칭송받는 스님이 있었다. 최근 불당을 짓고 불상을 만들어 온갖 공덕을 쌓으며 존귀하게 수행을 하였다. 임종도 훌륭하게 맞이하여 제자들도 주위 사람들도 의심할 바가 없이 왕생하였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스님의 영(靈)이 어떤 사람에게 빙의되어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였다. 들어본 즉 덴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제자들도 뜻밖의 일이라 안타깝게 여겼지만 어쩔 수 없어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다. 이상한 말을 하는 와중에 “내가 살아 있을 때 명문(名聞: 명예, 명성)을 중시하여 없는 덕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여 불상을 만들었더니 이런 몸이 되었다. 그 뒤 사람들이 절을 찾아와 기도드릴 때마다 나의 고통은 더하여졌다.”²⁾

이 이야기는 사후 덴구도에 빠진 스님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이야기 속 스님은 덕이 높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았으며 왕생할 것이라는 모두의 믿음대로 훌륭하게 임종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전의 기대와는 달리 스님은 덴구도에 떨어졌다. 스님이 덴구도에 떨어진 원인은 스님의 영(靈)이 스스로 밝히듯 살아있을 때 참된 수행보다는 명예와 명성을 따랐기 때문이다. 인간세계에서는 덕이 있는 스님으로 추앙받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야기 속 스님은 올바른 수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2) 三木紀人校注『方丈記発心集』<新潮日本文学集成> 新潮出版, 1998年, pp.348~349

라 거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니 그 업으로 덴구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할 때마다 자신의 고통은 더욱 심해진다고 하는 표현이다. ‘고통(苦患)’이라는 표현을 주의하고자 하는데 ‘苦患’은 지옥과 같은 곳에 떨어진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의미하는데 덴구도 역시 고통을 수반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위의 인용을 통해 속세의 명성을 중시하여 참된 수행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행을 방해한 자는 사후 지옥에 가까운 고통이 존재하는 곳, 즉 덴구도에 떨어진다고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덴구도에 떨어진 스님은 왕생을 한 스님 이야기만큼이나 중세 문헌에 흔히 보이는 소재이다. 덴구는 물론 중세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덴구의 초출은 『일본서기』조메이(舒明) 천황 9년으로 천둥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유성을 민(旻) 법사가 덴구라 지칭한 예이다.³⁾ 이후 산속의 기이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덴구의 이름이 모노가타리에 조금씩 등장하다 마침내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에 이르러 덴구의 구체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게 된다.⁴⁾ 『곤자쿠모노가타리슈』의 덴구는 불도 수행을 방해하는 마성(魔性)을 지닌 존재인데 중세가 되면 이와 같은 덴구 이미지를 바탕으로 덴구가 모여 사는 덴구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한편, 위 이야기와는 달리 참된 수행과 공덕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덴구도에 떨어진 스님도 있다. 『발심집』2권 8화에 등장하는 진조보(眞淨房)는 아미타불을 독실하게 믿고 열심히 수행했지만 후세(後世)에도 함께

3) 민 법사는 중국 유학파로 유성을 덴구라 한 것은 일본 고유의 덴구관이라기 보다는 중국 덴구관의 영향이다. 『사기』 『한서』 등에 보이는 덴구는 지상에 재앙을 가져오는 유성이며 『산해경』에는 목이 흰 너구리와 같은 짐승으로 서술되어 있다. (高橋昌明『鬼と天狗』, 岩波講座日本通史中世二, 岩波書店, 1994年, p.330)

4) 『곤자쿠모노가타리슈』 20권은 혼초(本朝) 불법(佛法)편 마지막 권으로 12개(8화는 제목만)의 덴구담이 모여 있다. 덴구담에는 중국에서 일본의 고승을 시험하기 위해 건너온 덴구, 환술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덴구 등 다양한 덴구가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 반불법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덴구의 반불법성은 세속(世俗)편인 27권에 모여 있는 귀신이나 영(靈鬼)과 차별화된 속성이다. 이와 같은 『곤자쿠모노가타리』 덴구담의 특징을 미야모토 게사오(宮本袞彦)는 “불교의 이단자이며 수행을 방해하는 마성을 지닌 존재로 고승이나 고귀한 인간에 의해 간단히 진압되어 버리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다(『天狗と修験者』人文書院, 1989, p.27).

하겠다는 스승과의 약속 때문에 덴구도에 떨어지게 된다. 진조보는 설마 자신의 스승이 덴구도에 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진조보는 자신이 왜 정신착란에 빠진 채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덴구도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빙의하여 이야기한다.

진조보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설령 수행과 덕이 높은 사람이더라도 반드시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되겠네. 진조보는 길을 잘못 들어 나쁜 길로 들어갔으니 불쌍하게도 이렇게 되어 버렸네.”⁵⁾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후세를 걸고 함부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진조보의 스승은 스님으로서 명망이 높았지만 앞서 경우처럼 덴구도에 떨어졌다. 인용에서 사람들은 겉으로 수행과 덕이 높아 보이는 스님 또한 덴구도에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중세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덴구도에 떨어진다고 여겼는지 그 예를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를 통해 살펴보자. 중세 산문 문학을 대표하는 『헤이케모노가타리』에는 ‘덴구문답’이라는 덴구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담겨 있다. 덴구문답은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과 스미요시다이묘진(住吉大明神) 사이에 이루어진 문답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덴구에 관한 문답이다. 이 이야기는 『헤이케모노가타리』 판본 중 하나인 엔교본(延慶本)과 『겐페이조스이키(源平盛衰記)』에 실려 있으며 특이하게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가진 『덴구모노가타리(天狗物語)』⁶⁾라는 별도의 텍스트도 존재한다. 덴구의 외모, 습성, 특성, 사는 곳 등 덴구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아울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덴구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5) 『方丈記発心集』 p.117

6) 오에이(応永) 26(1419)년 서사(書写)되었다고 하는 『덴구모노가타리』는 니오카 다카아키(新岡孝昭)에 의해 새로운 자료로서 1959년 소개되었다(『新資料「天狗物語」と「平家物語」との関係』『大谷学報』39卷2号). 이 논문에는 엔교본, 『겐페이조스이키』와의 대조표도 자세하게 실려 있다.

천마(天魔)⁷⁾라 하는 것은 모든 지자(智者), 학생으로 도심(道心)이 없으며 심히 교만하다. 도심이 없는 지자가 죽으면 반드시 천마라는 귀신이 된다. 그 모습은 개와 같고 몸은 사람이며 좌우에 날개가 있다. 앞뒤 백 년을 아는神通력이 있으며 허공을 나는 것이 화살과 같다. 불자(仏者)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도심이 없기 때문에 왕생하지 못한다. 교만이라 함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마음이며 도심이 없다는 것은 어두움(愚痴) 속을 헤매는 자에게 지혜의 등불을 비추어주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염불하는 자를 방해하고 조롱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자는 죽어서 반드시 덴구도에 떨어진다고 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말세의 스님은 모두 도심이 없고 교만하기 때문에 열 명 중 아홉 명은 반드시 천마가 되어 불법을 파멸한다.⁸⁾

인용문을 보면 덴구의 주요한 특징들이 보인다. 겉모습은 사람과 개를 닮았으며 날개가 있어 비행을 하며 또한神通력이 있어 앞날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덴구조시(天狗草紙)』, 『제가이보에마키(是害房繪卷)』를 비롯한 그림 자료를 보면 덴구들이 인용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의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어딘지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에마키(繪卷)에 그려져 있는 덴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짐승 같기도 하고 날개와 부리가 있어 새 모양의 덴구도 있다.⁹⁾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니 덴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하고자 한다.

밑줄 친 부분은 어떤 사람이 덴구도에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덴구도에 떨어지는 사람으로 우선 지자, 학생을 꼽고 있다. 여기서 학생이라 함은 불교를 공부하는 학승을 의미하며 지자 역시 일반적인 지식인이라기보다는

7) 덴구문답에서 스미요시다이묘진은 천마를 다시 천마와 파순(波旬), 마연(魔縁)의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 인용은 그중 첫 번째인 천마에 관한 설명이다. 파순은 덴구의 업이 끝나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 침거하는 상태를 말하며 마연은 죽으면 덴구가 될 만한 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마(魔)를 불러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8) 北原保雄・小川栄一編『延慶本平家物語上』勉誠社, 1990年, pp.223~224

9) 덴구의 외모에 대한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미야모토 게사오(宮本袈裟雄)에 의하면 덴구가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은 슈겐도(修験道)의 영향으로 8덴구, 48덴구가 만들어질 무렵이라고 한다. 특히 슈겐도의 야마부시(山伏) 모습은 큰 영향을 끼쳐 야마부시 형 덴구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부리가 달린 조류형 덴구도 에마키(繪卷)에 많이 등장한다. 덴구의 외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야모토 게사오의 『天狗の図像学』(『日本人の原風景1』旺文社, 1986)을 참조하기 바란다.

불교의 교리를 잘 아는 사람, 즉 승려를 의미한다. 승려와 같은 이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덴구도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불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지만 올바른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생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덴구도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위의 인용에서 덴구와 천마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마는 천계¹⁰⁾, 그 중에서도 육계천의 제6천인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에 존재하는 마왕으로 이름은 파순(波旬)이며 덴구와 달리 불교 교리상 존재하는 마(魔)이다. 누구든지 불도를 수행하고자 하면 천마가 따르다고 하는데 석가모니 역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도를 깨치려고 할 때 천마의 방해를 받았다고 한다. 수행하는 자를 미혹하게 하고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덴구와 천마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덴구도를 설명함에 있어 무도심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용은 덴구도에 떨어지는 요인으로 무도심과 함께 교만을 지적하였는데 교만 역시 덴구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지금도 잘난 척하고 우쭐대는 것을 일본어로 ‘天狗になる’라고 표현한다. 덴구문답은 교만과 덴구와의 관련성을 특히 잘 보여주고 있다. 덴구문답은 지쇼(治承) 2(1178)년 미이데라(三井寺)에서 관정을 하고자 했던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이 산문(山門)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하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서술되고 있다. 관정이 무산되고 시름에 잠겨 있던 고시라카와인 앞에 스미요시다이묘진이 나타나 이번 사건의 배후에 덴구가 있음을 알려 준 것이다. 스미요시다이묘진의 설명에 따르면 고시라카와인의 교만한 마음이 전국에 있는 덴구를 불러 모았으며 이들 덴구는 산문 스님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고시라카와인의 관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고시라카와인의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한 종교인이 죽으면 덴구도에 떨어지지만 그가 아직 살아 있을 때 그 교만한 마음은 덴구를 불러들이는 인연의 역할을 한다. 소위 마연(魔縁)이다. 인간세계(顯)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산문과 미이데라와의 권력다툼이다. 그러나 스미요시다이묘진의 눈으로 보면, 즉 명(冥)의 눈으로 보면 고시라카와인의 교만심이 불러온 덴구에

10) 천계는 천상계, 육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으로 나뉘고, 그 중 육계천은 사왕천, 도리천, 염마천, 도술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으로 다시 나뉜다.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관정이라는 중요한 종교적 의식을 방해한 것은 산문의 스님이 아니라 고시라카와인의 교만한 마음인 셈이다. 결국 모노가타리 속에서는 스미요시다이묘진의 설명에 깨달음을 얻은 고시라카와인은 자신의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덴노지(天王寺)에서 무사히 관정을 받게 된다. 덴구문답을 통해 덴구도는 무도심하고 교만한 자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요한 종교적 행사에도 교만은 일본의 온갖 덴구들을 불러들이는 인연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덴구도의 덴구유형 - 선한 덴구와 악한 덴구

앞서 덴구도에 떨어진 스님 이야기와 스미요시다이묘진의 덴구도에 대한 설명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덴구도는 과연 육도 윤회의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고 여겼을까? 본 절에서는 중세인들이 덴구도를 어떠한 성격의 곳으로 설정하였는지, 윤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덴구도를 생각하기에 앞서 덴구문답에서 보았던 천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다. 덴구와 천마는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하는데 덴구와 달리 천마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며 확실하게 육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즉 천마는 육도 중 천계의 제6천인 타화자재천에 산다고 한다. 호소카와 료이치(細川涼一)가 강조하고 있듯이 천마들이 사는 마계(魔界), 마도(魔道)는 악마들이 사는 세계이기는 하지만 천상계에 존재한다.¹¹⁾ 이 점에서 지옥과는 엄연히 다르다. 천마와 덴구를 동의어로 놓고 본다면 덴구도 역시 천상계에 위치해야 하나 덴구도는 꼭 그렇게 인식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사람들이 덴구도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다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덴구도에도 지옥과 같은 고통(苦患)이 존재한다고 여겨졌다. 덴구도는 지옥은 아니지만 삼악도에 가까운 고통이 존재하는 곳 정도로 유추할

11) 細川涼一『逸脱の日本中世』筑摩書房, 2000年, p.103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고통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문기를 쇠 덩어리를 매일 세 번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떠한가?

답하기를 덩어리는 아니다. 삼각형 모양의 쇠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쇠가 골수를 통과하는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그러나 매일 먹는 것은 아니다. 나쁜 일을 했을 때 먹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¹²⁾

위의 내용은 『히라산코진레이타쿠(比良山古人靈託)』에서 인용한 것인데 덴구가 당하는 고통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고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흡사 지옥의 한 풍경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먹고 싶지 않지만 저절로 입으로 들어오는 쇠,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인해 얻어지는 골수를 찌르는 고통은 지옥의 형벌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킨다. 히라산 덴구는 그와 같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덴구도가 지옥과 다른 점은 고통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덴구의 행동에 따라 덴구도에서의 고통도 정해진다. 어떤 의미에서는 덴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덴구도의 고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또 다른 작품, 『태평기(太平記)』를 살펴보자. 다음 인용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행하던 한 방랑승이 조와(貞和) 2(1346)년 닌나지(仁和寺)에서 우연히 보게 된 덴구들의 회합 장면이다.

잠시 후 재속(在俗)의 법사 같은 이가 은주전자에 금 술잔을 가지고 오토노미야(大塔宮) 앞에 나아왔다. 오토노미야가 잔을 들고 좌우에 예를 하고 세 번 드시고 내려놓자 미네노소조(峯僧正) 이하 차례로 마셨지만 그다지 흥이 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잠시 뒤 동시에 악 하는 소리가 나자 손을 뺀고 발을 오므리고 머리에서는 검은 연기가 나고 버둥대며 괴로워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다. 잠시 후 나방이 등불에 달려들 듯 불타 죽었다. 참으로 무섭구나, 이게 덴구도의 고통이구나. 철 덩어리를 세 번 주야로 먹인다더니 이것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4시간 쯤 지나서 모두 되살아났다. 미네노소조는 괴로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렇지만 세상의

12) 木下資一校注『宝物集閑居友比良山古人靈託』<新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1993年, pp.47
1~472

실권이 무장(武將)의 손에 넘어가 이대로 평온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소동을 일으켜 선제(後醍醐天皇)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합니다.”¹³⁾

위의 인용에는 덴구의 고통이 보다 처절하게 그려져 있다. 쇠 덩어리는 아니지만 몸을 태우는 액체를 마시고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덴구들은 불나방처럼 죽음을 맞이한다. 두 인용 모두 입으로 무언가를 먹고 고통을 당한다. 삼각형 모양의 쇠, 마시면 몸이 불타 죽게 되는 액체는 그들이 생전에 입으로 지은 업을 상징한다. 덴구도의 고통만을 보면 온갖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천계 제6천이라는 생각보다 지옥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중세인들 역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덴구도에 대한 공포심을 키우고 아울러 불도에 더욱 정진했을 것이다.

그런데 『태평기』 인용 속 덴구들은 히라산 덴구와는 달리 살아나자마자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댄다. 앞서의 고통은 히라산 덴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쁜 일(僻事)을 하였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지만 『태평기』 속 덴구들은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 그 고통을 의연히 감내하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흔히 중세의 덴구하면 불도 수행을 방해하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만이 강조되는데 그 이면에는 인용과 같은 덴구도의 고통이 함께 공존했던 것이다.

덴구도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 존재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곳은 또한 성불의 기회가 주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발심집』 2권 8화에서 진조보는 자신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스승과의 약속 때문에 덴구도에 떨어졌는데 그 뒤 그는 덴구도에서 벗어나 그의 바람대로 왕생을 거두었다.

단 덴구에게는 정해진 것이 있다. 내년이면 6년이 된다. (6년이 되는) 그 달에 반드시 덴구도를 벗어나 극락에 가고자 하니 별 탈 없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양해 주시오.¹⁴⁾

13) 長谷川端校注『太平記』〈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2004, pp.214~215

14) 『方丈記発心集』 p.116

진조보의 말에 따르면 덴구는 6년이면 덴구도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덴구도 역시 윤회의 틀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즉 덴구도의 고통도 영원한 것은 아니며 뜻을 바로 잡으면 덴구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덴구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생전에 열심히 수행한 진조보 역시 어머니의 추선공양(追善供養)이 더해져 무사히 덴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즉 살아 있는 사람의 공양이 필요한 것이다.

진실된 마음으로 반야경을 독경할 때는 내 마음속 망념이 모두 사라진다. 또한 법화경을 낭독할 때는 내 몸 속이 시원해진다. 계율을 들을 때는 마음이 곧아진다. 계율은 가장 효과가 좋다. 그러나 악연을 만나면 처음처럼 다시 마음이 어지러워진다.¹⁵⁾

인용은 이와 같은 공양에도 불구하고 덴구도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덴구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사후 공양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과 계율을 들어도 악연을 만나면 다시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마는 것이 덴구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덴구도는 그 이미지가 이중적이다. 지옥과 같은 고통이 존재하지만 육도 중에서는 천계에 속하며 윤회를 끊고 왕생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애매함이야말로 덴구도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던 덴구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덴구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덴구와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 덴구도의 고통을 감내하는 덴구이다. 불도 수행을 방해하고 난세를 만들어내는 덴구의 이미지는 후자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덴구는 급기야 선한 덴구, 악한 덴구라는 두 부류의 덴구로 발전된다. 무주(無住)의 『샤세키슈(沙石集)』를 보면 덴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덴구는 현세(現世)에서의 마음가짐, 수행의 덕, 지혜의 정도에 따라 제각기 다양

15) 『宝物集閑居友比良山古人靈託』 p.469

하다. 크게 나누어 선한 덴구, 악한 덴구 두 종류가 있다. 악한 덴구는 교만함과 집착하는 마음만이 있고 불법을 믿는 마음이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선행을 방해한다. 언제 덴구도에서 벗어날지 기약이 없다. 선한 덴구는 불법에 마음을 둔다. 지혜와 수행의 덕은 있지만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온전한 수행이 되지 못해 성불하지 못하고 덴구도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덴구도에서도 불도를 수행하고 사람들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악한 덴구의 나쁜 행동을 제지하여 불법을 수호한다. 이들은 얼마 있지 않아 덴구도에서 벗어난다고 한다.¹⁶⁾

설화나 군키모노가타리에서 불도수행을 방해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등 맹활약하는 덴구는 위의 규정에 따르면 악한 덴구이다. 악한 덴구는 덴구도의 고통을 받아야 하며 덴구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반면에 『발심집』2권 8화에 등장하는 진조보처럼 수행을 하였으나 집착이나 약속 때문에 덴구도에 떨어진 경우 불도에 마음을 두어 금방 덴구도를 벗어난다. 이들 선한 덴구는 심지어 인간들에게 친절하게 불교 경전을 해석해주기도 하고 진언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러나 선악의 이분법적 기준으로 덴구를 분류하는 것은 상당히 임의적이며 인용문 첫째 줄에서 전제하고 있듯이 덴구는 생전의 마음가짐, 수행의 정도, 지혜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덴구가 존재한다고 여겨졌다. 예를 들면 『히라산코진레이타쿠』에서 게타쓰보(解脫房)의 사후를 묻는 질문에 히라산 덴구는 “나는 불교의 교리를 많이 공부하지 못하여 알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스스로 신통력의 한계를 이야기한다. 선악뿐만이 아니라 공부의 정도, 수행의 정도 등, 덴구에게도 각각의 다양한 개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간세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중세인들 역시 덴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는지 덴구문답을 보면 고시라카와인은 덴구에 대해 짐승인지 수라도에 속한 무리인지 물어본다. 스미요시다이묘진은 인간(人類)이라 답해주며 그들은 인간처럼 남녀의 구분이 있으며 모자를 쓰고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자 덴구는 분(白物)을 바른다고 설명해 준다. 반면 『샤세키슈』는 덴구를 귀신(鬼類)이라 칭하며 예전부터 일본에서 이야기되는 존재이기는 하나 불교 경전에는 분명한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⁷⁾ 심지어 『태평기』12권 「문칸(文觀) 승정 행동에 관한 일」에는 제

16) 小島孝之校注『沙石集』<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2003年, p.485

17) 『沙石集』p. 485

6천 마왕인 파순이 아수라의 권속(眷屬)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덴구에 대한 언설이 존재하다 보니 덴구의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고 덴구도 역시 천계에 존재하지만 지옥의 고통이 존재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이미지 파악이 쉽지 않다.

IV. 덴구와 인간의 조우 - 빙의

왕생담이 그렇듯, 덴구도에 관한 이야기 역시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죽어서 덴구도에 떨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들의 활약상은 덴구를 보고 경험한 이들에 의해 증언된다. 이들의 증언에는 때로는 정치, 사회적 배경이 담겨 있기도 하고¹⁸⁾ 이들에 의해 생성된 덴구담은 또 다른 사회적 언설로 확산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문맥보다 덴구와 인간의 만남의 형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덴구의 ‘빙의’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중세인들은 덴구도를 어디에 존재한다고 여겼을까? 이 질문은 지옥이 어디에 있을까와 비슷한 질문이다.¹⁹⁾ 물론 『곤자쿠모노가타리슈』의 경우, 너무나 자연스럽게 덴구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흡사 덴구가 인간계에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심지어 인간처럼 덴구에게도 국적이 있어 인도 덴구, 중국 덴구가 일본의 고승을 시험하기 위해 건너오는 이야기도 있다.²⁰⁾ 그러

18) 예를 들면 당대의 저명한 스님들의 환생처를 언급한 『히라산코진레이타쿠』의 경우, 덴구도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되는 초젠(長嚴), 닌케이(仁慶), 쇼엔(承円), 호엔(法円)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세속적인 다름 때문에 구조케(九条家)와 대립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무라 다쿠미(野村卓美)「道家を悩ます人々」, 『仏教文学』11卷, 1987年 3月)을 참고하기 바란다.

19) 불교의 지옥은 염부제(閻浮提)라는 대륙의 지하, 혹은 철위산(鉄冚山)에 있다고 여겨진다. 염부제를 예로 들면 염부제 대륙의 지하 2만 유순에 무간지옥이 있으며 그 위 중앙 부분에 팔열지옥이 층층이 있고 이를 감싸듯이 팔한지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모리 마사토(森正人)는 이들 인도, 중국 덴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가 외국에서 전래되었듯이 반불법적인 것 역시 외국에서 건너왔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는 덴구도의 유래를 일본 불법의 창시자인 쇼토쿠(聖徳) 태자 시대라고 하는 『제가이보에마키(是害坊絵巻)』의 관점과 호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天狗と仏法』, 『天狗と山姥』河出

나 덴구는 어디까지나 인간계와는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마(魔)이다. 보통 사람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덴구와 인간의 접촉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간이 우연히 덴구의 세계를 침범하는 경우이다. 소위 덴구 목격담이다. 중세 덴구 자료를 보면 덴구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면 아타고(愛宕) 산이라든지, 시라카와(白川), 호조지(法成寺)가 그러하다.²¹⁾ 우연히 이들 지역을 지나가던 스님이 덴구들의 집회를 목격하거나 덴구와 함께 하는 체험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다이텐구(大天狗)²²⁾가 산다는 히라(比良) 산, 구라마(鞍馬) 산과 같은 신령한 산을 배경으로 수많은 덴구 목격담이 양산되고 유통되었다. 이들 목격담은 지옥이나 황천과 같은 이계(異界)를 다녀온 사람들의 목격담과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연히 이계로 들어간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인간 세상에 돌아온 뒤 증언하는 형식이다. 이와 같은 덴구 목격담은 전국을 수행하며 심산유곡을 돌아다니는 수도승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한정된 그룹의 사람들이 덴구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덴구가 인간 세계로 접근하는 경우는 덴구 목격담과는 달리 여성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덴구와 접촉하게 된다. 텍스트 속 덴구들은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혹은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 또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계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덴구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환술과 빙의이다. 덴구는 불도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환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다.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시험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영화로

書房新社, 1990年, p.77)

21) 하라타 마사토시(原田正俊)에 의하면 이들 장소는 각각 덴구가 출몰하기에 좋은 나뭇의 이윅을 가지고 있다. 아타고 산은 교토의 서북쪽에 해당하여 원령이나 역신이 들어오는 방향이라 덴구의 거처로 언급하기 좋다. 시라카와는 산승들이 내려오는 길목으로 원정기(院政期)에는 로쿠쇼지(六勝寺)가 있어 번영하였으나 가마쿠라(鎌倉) 시대에 이르러 쇠퇴하기 시작한 곳이다. 특히 로쿠쇼지 중 하나인 호쇼지(法勝寺)는 덴구가 자주 출몰한 곳으로 유명하다. 호조지는 이세(伊勢)에서 올라오던 스님이 덴구에게 이끌려 술을 먹고 춤을 춘 장소로 『메이게쓰키(明月記)』 덴구담 배경으로 유명하다.(『天狗草紙』を讀む, 『天狗と山姥』, 河出書房新社, 2000年, p.136)

22) 다이텐구로는 8덴구(愛宕山太郎坊, 比良山次郎坊, 飯綱三郎, 鞍馬山僧正坊, 大山伯耆坊, 彦山豊前坊, 大峰山前鬼坊, 白峰相模坊)가 유명하며 이 밖에도 근세 자료인 『덴구교(天狗経)』에는 48명의 다이텐구 이름이 소개되어 있다.

운 모습을 만들어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술은 『곤자쿠모노가타리슈』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듯, 고승이나 고귀한 사람에 의해 간단히 간파되고 만다.²³⁾ 덴구의 정체는 금방 탄로나 버리게 되는 것이다. 환술이나 변신은 타화 자재천에 사는 천마의 특기이다. 반불법적인 일을 시도하여 불도를 방해하지만 고승에게 간단히 제압당한다는 측면에서 덴구는 천마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덴구가 인간계에 다가오는 두 번째 방식인 빙의는 환술과는 달리 사람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강력하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 들러 붙어 병을 일으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여 자신의 뜻대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한다. 또는 빙의된 사람의 입을 빌어 신약을 내리기도 한다. 빙의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중세 덴구는 이전 시대의 불도 수행을 방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체제 전복과 혼란을 야기하는 무서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 중세 덴구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모노가타리의 주요 등장인물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와 같은 덴구의 질적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에는 불안정한 사회, 불교계의 분열, 그리고 스토쿠인(崇徳院)과 고토바인(後鳥羽院)과 같은 강력한 원령의 등장 등이 영향을 미쳤다.

덴구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전형적인 예를 앞서 살펴보았던 덴구문답을 통해 살펴보자. 전국에서 몰려든 덴구들은 산문 스님들에게 빙의하여 고시라카와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등 고시라카와인과 산문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만들어냈다. 관정은 불교 행사지만 관정으로 인한 두 세력의 충돌은 정치적 혼란을 의미한다. 덴구문답의 경우 다행히 스미요시다이묘진 덕분에 정치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헤이케모노가타리』지쇼(治承) 3년 쿠데타의 경우, 스토쿠인 덴구가 기요모리(清盛)의 몸에 빙의하여 전대미문의 쿠데타를 일으켜 세상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²⁴⁾ 호주지 전투(法住寺合戦)에서는 덴구에 빙의된

23) 『곤자쿠모노가타리슈』 20권 덴구담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森正人「天狗と仏法—今昔物語集の統一的把握をめざして—」(『愛知県立大学文学部論集』34卷, 1985年2月), 阿部泰郎「天狗—魔。の精神史」『国文学』(44-8, 1999年7月), 久世昌子「『今昔物語集』の天狗の歴史的的位置」(『日本文学ノート』宮城学院女子大学, 20卷, 1985年2月)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24) 덴구문답과 지쇼 3년 쿠데타에 있어 덴구의 특징과 역할에 관한 분석은 즐고(『고시라카와인

다이랴노 도모야스(平知康)가 기소 요시나카(木曾義仲)를 상대로 무모한 전투를 벌여 고시라카와인 쪽 아군이 궤멸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 이처럼 빙의된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사회적 여과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

사에키 신이치(佐伯真一)가 지적하고 있듯이 『헤이케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스토쿠인을 필두로 하는 텐구들은 아직 정체 모를 악령으로 공포감을 주는 정도지만, 『태평기』에 이르면 이들 텐구들은 구체적으로 스토리 전개에 기여하며 작품내에서 명확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²⁵⁾ 이와 같은 텐구는 앞서 분류에 의하면 소위 악한 텐구에 속한다. 악한 텐구는 다른 사람의 불도 수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 주요 정치인과 무사들, 영향력 있는 스님에게 빙의한다. 세상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빙의한 텐구의 영향력으로 전용되며 그 힘으로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지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텐구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앞서 보았던 지옥과 같은 고통도 견디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 전복을 꾀하는 텐구의 활동은 이미 불교의 교리로 설명하기 힘들다.

주요 정치인에 빙의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서운 텐구가 있는가 하면 빙의를 통해 인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텐구도 있다. 무주의 분류에 따르면 착한 텐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 텐구도에 대한 정보, 다른 악령에 대한 대처법, 주요 인물들의 환생처 등 인간에게 유용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 텐구의 특징은 ‘이야기’를 하는 데에 있다. 앞서 보았던 『발심집』 2권 8화의 진조보의 예를 보자. 진조보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빙의하여 어머니의 입을 빌어 자신이 신실한 수행에도 불구하고 정신 착락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까닭을 이야기하고 텐구도에서 빠져 나가기 위한 추선공양을 부탁하였다.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점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머니가 아니라 텐구인 진조보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어머니는 그저 매개체일 뿐이다.

(後白河院)과 텐구(天狗)-난세를 만들어내는 텐구의 탄생-』『일본문화학보』29집, 2006년 5월)를 참고하기 바란다.

25) 佐伯真一「憑依する悪霊-軍記物語の天狗と怨霊に関する試論-」『青山語文』31卷, 2001年3月, p.95

이는 앞서 살펴본 모노가타리속 덴구담과는 상반된다. 모노가타리 덴구담의 경우, 이야기의 주된 포인트는 덴구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이다. 앞서의 예로 보자면 산문과 고시라카와인과의 대립, 지쇼 3년 쿠데타, 호주지 전투 등인 셈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빙의한 덴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이다. 심지어 관정을 방해한 덴구의 경우, 일본 전국에서 물려들었다고 되어 있을 뿐 이름조차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덴구의 이름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와 같은 덴구담의 주인공은 덴구에 들린 채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 즉 산문의 스님들, 기요모리, 도모야스에 맞추어져 있다.

『발심집』 2권 8화의 진조보 빙의는 신병, 빙의, 하품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무속의 신내림을 연상하게 한다. 이케가미 요시마사(池上良正)의 지적처럼 진조보의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왕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변의 추측을 부인하지 않고도 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²⁶⁾ 여기서 진조보의 어머니가 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만든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죽은 사람의 사후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왕생담, 덴구담의 양산은 동시대인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왕생담, 덴구담의 양산, 바꾸어 말하면 사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야말로 중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히라산코진레이타쿠』의 히라산 덴구는 진조보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후지와라노 미치이에(藤原道家)의 발병 원인과 처방은 물론 미치이에 주변 인사들의 사후 환생처에 대한 정보, 덴구의 습성과 특징 등 실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헤이케모노가타리』의 덴구문답도 그렇지만 『히라산코진레이타쿠』도 문답의 형식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다. 덴구문답은 문답이라고는 하지만 스미요시다이묘진의 장황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히라산코진레이타쿠』는 지은이인 게이세이(慶政)와 주고받는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질문을 하는 쪽인 게이세이가 이야기의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 당연히 문답의 내용이 미치이에 집안인 구조케(九条家)와 관련된 인물

26) 池上良正「憑依再考-宗教学的な視座から-」『駒沢大学文化』21巻, 2003年 3月, p.39

에 집중되게 된다. 물론 스토쿠인을 필두로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천황과 스님들은 모두 설화나 모노가타리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긴 하지만²⁷⁾ 이들을 보는 시선에 있어 구조케의 입장이 강하게 담겨져 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노무라 다쿠미(野村卓美)가 지적하고 있듯이 빙의상태에서 노보(女房)의 입을 빌어 이야기되긴 했지만 신탁의 내용은 구조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위기의식, 특히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인물들의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대변하고 있다.²⁸⁾

중세 덴구는 빙의를 통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등극했다. 덴구도는 이제 사심을 버리지 못한 채 수행한 고승이나 수행을 방해했던 스님들만이 아니라 천황을 비롯한 왕비, 명문 귀족 등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변질되었다. 빙의 현상과 관계는 없지만 한 가지 사족을 덧붙이고자 한다. 덴구도에는 다양한 출신과 개성의 덴구가 존재하는데 과연 이들은 동등한 힘을 발휘했을까? 히라산 덴구에 의하면 스토쿠인, 고시라카와인은 물론 가네자네(兼実)와 모토미치(基通)와 같은 정적(政敵)도 나란히 덴구도에 떨어졌다고 한다. 살아있을 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원수가 되었던 이들이 나란히 덴구도에 떨어진 셈이다. 이들은 과연 덴구도에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 권력투쟁을 할까?

문기를 고시라카와인과 스토쿠인, 어느 쪽의 위세가 대단한가?

답하기를 고시라카와인의 위세, 의외로 대단하다. ²⁹⁾

고시라카와인과 스토쿠인 중 누구의 위세가 대단한가라는 질문에 히라산 덴구는 고시라카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가 하면 가네자네와 모토미치 중에서는 가네자네의 손을 들어주었다. 모토미치의 경우 다른 덴구들이 무서워하지도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지만 가네자네는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덴구도에도 힘이 강한 덴구와 그렇지 않은 덴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웬지

27) 久保田淳「魔界に墮ちた人々-『比良山古人靈託』とその周辺-」『文学』36-10, 1968年, p.43

28) 野村卓美「道家を悩ます人々」『仏教文学』11卷, 1987年 3月, p.40

29) 『宝物集閑居友比良山古人靈託』p. 469

중세 정치판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덴구도에도 인간세계와 마찬가지로 강자와 약자가 있고 서열이 있다는 것이다. 훗날 『태평기』나 『덴구조시』에 보이는 전형적인 덴구 집회의 모습, 즉 중심에 위세가 대단한 덴구가 있고 그 주변에 보좌하는 덴구들이 모여 있는 그림의 맹아가 이미 『히라산코진레이타쿠』에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세 덴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간세계를 반영하고 인간의 속성을 전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빨간 얼굴과 높은 코, 나막신과 부채, 그리고 날개로 상징되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덴구의 이미지는 근세에 성립된 것이다. 중세 문헌에 빈번히 등장하는 덴구는 이와는 달리 희극적인 이미지는 전혀 없고 진지하며 때로는 위협적이기도 하다. 중세는 덴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대이다. 본 논문은 중세만의 독특한 사후 세계인 덴구도와 덴구의 빙의를 중심으로 중세 덴구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덴구는 슈겐도를 비롯하여 산악 사상, 불교 등 다양한 사상을 배경으로 태어난 일본 고유의 마(魔)다. 물론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곤자쿠모노가타리』의 경우처럼 천마와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도 있다. 그러나 중세로 넘어오면서 어지러운 사회상을 반영하듯 덴구도 보다 강력한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빙의와 덴구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덴구도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있는 곳이며 인간세계처럼 선악이 존재하고 높낮음의 서열이 있다고 여겨졌다. 일본만의 독자적인 사후세계인 덴구도는 전체적인 틀로 보았을 때 불교의 윤회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존재하지만 덴구의 선택에 따라 해탈할 수도 있는 곳이 덴구도이다. 그러나 사후 세계에도 생전의 위세가 반영된다든지, 빙의에 의해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세상을 어지럽힌다든지 하는 내용은 천마에서는 볼 수 없는 일본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중세의 덴구담은 종교적이기도 하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 덴구에 빙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허황된 이야기라 치부하지 않고 덴구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동시대 사회, 문화, 정치적 문맥 속에서 고찰하면 앞으로 많은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은 덴구도와 빙의에 관련된 덴구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중세에 양산된 전체 덴구담 중 극히 일부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회가 되면 보다 덴구를 다룬 노(能) 작품 『구라마덴구(鞍馬天狗)』를 비롯한 보다 많은 중세 자료를 분석하여 중세 덴구의 문화사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싶다.

참고문헌

- 池上良正(2003)「憑依再考-宗教学的な視座から-」『駒沢大学文化』21卷, p.39
- 北原保雄・小川栄一編(1990)「延慶本平家物語上」勉誠社, pp.223~224
- 久保田淳(1968)「魔界に堕ちた人々-『比良山古人靈託』とその周辺-」『文学』36-10, p.43
- 木下資一校注(1993)「宝物集閑居友比良山古人靈託」岩波書店, pp.471~472
- 佐伯真一(2001)「憑依する悪霊-軍記物語の天狗と怨霊に関する試論-」『青山語文』31卷, p.95
- 高橋昌明(1994)「鬼と天狗」『岩波講座日本通史中世二』岩波書店, p.330
- 新岡孝昭(1959)「新資料「天狗物語」と「平家物語」との関係」『大谷学報』39卷2号, pp.38-63
- 野村卓美(1987)「道家を悩ます人々」『仏教文学』11卷, p.40
- 長谷川端校注(2004)「太平記」小学館, pp.214~215
- 原田正俊(2000)「『天狗草紙』を読む」『天狗と山姥』,河出書房新社, p.136
- 細川涼一(2000)「逸脱の日本中世」筑摩書房, p.103
- 三木紀人校注(1998)「方丈記発心集」新潮出版, pp.348~349
- 宮本袈裟雄(1986)「天狗の凶像学」『日本人の原風景1』旺文社, pp.126~129
- _____ (1990)「天狗と修験者」人文書院 p.27
- 森正人(1990)「天狗と仏法」『天狗と山姥』河出書房新社, p.77

- ❖ 투고일 : 2014.12.31
- ❖ 심사완료일 : 2015.02.08
- ❖ 게재확정일 : 2015.02.09

Abstract

일본 중세 텐구(天狗)에 관한 연구

박은희

일본에 있어 중세라는 시대는 전란으로 상징되는 시대이다. 텐구(天狗)는 이와 같은 불안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맹위를 떨쳤다. 본 논문에서는 중세에 새롭게 만들어진 일본만의 독특한 사후 세계인 텐구도와 빙의를 중심으로 중세 텐구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텐구도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있는 곳으로 중세인들은 사후 텐구도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텐구도에는 인간세계처럼 선과 악이 존재하는가 하면 위계질서, 즉 서열의 높고 낮음도 있다고 여겨졌다. 텐구도에 떨어진 텐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불법(佛法)을 수호할 수도, 그리고 방해할 수도 있다. 텐구도는 전체적인 틀로 보았을 때 불교의 윤회사상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특유의 사후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생전의 정치력이 사후 세계에 반영되는 것은 불교의 천마(天魔)와는 다른 일본 특유의 독특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는 힘을 가진 중세 텐구의 탄생은 고승에 의해 간단히 진압되는 이전 시대 텐구로부터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텐구는 군키모노가타리(軍記物語)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중세 텐구는 환술과 빙의라는 형식을 통해 인간에게 접근하는데 이 중에서 빙의는 강력한 텐구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인사에게 빙의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난세를 만들기 위해 텐구가 주로 사용한 방식이다. 그래서 중세 텐구담은 종교적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 또한 천마와는 다른 중세 텐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Key Words : 윤회사상, 텐구도, 천마, 난세, 빙의

Abstract

A Study on the *Tengu* in the Middle Ages in Japan

Park, Eun-hee

There were many wars in the Middle Ages in Japan. Japanese in the Middle Ages felt anxiety about the future, but they found relief in religion—Buddhism. *Tenma* demanded that people master Buddhist doctrines. *Tengu*, which is a Japanese demon and is similar to *Tenma*, did active work in the Middle Ages. They believed that in *Tengudo* unreligious people were reborn after death. According to Buddhist teachings, all living beings are trapped in the eternal cycle of birth, death, and rebirth, and *Tengudo* was a unique Japanese afterlife. Japanese in the Middle Ages thought there were sufferings like hell, but that there was hierarchy, too. And people who followed *Tengudo* thought that there were both good *Tengus* and evil *Tengus*. A good *Tengu* could be delivered from its worldly existence, and evil *Tengus* would suffer hell. *Tengudo* is thus similar to human society.

Through possession, a *Tengu* could grow into a heavyweight demon. *Tengu* was the symbol of chaos; they liked chaos. And if an important person like *Tenno* or *Shyogun* were possessed by *Tengu*, Japan would become dangerous. In *Monogatari*, *Tengu* made chaos in this way. Originally, *Tengu* possessed a religious background, not a political one. After the Middle Ages, though, *Tengu* became political demons. Having a political background was a distinct feature of Medieval *Tengu*.

Key Words : a Doctrine of Samsara, *Tengudo*, *Tenma*, a turbulent period, possession